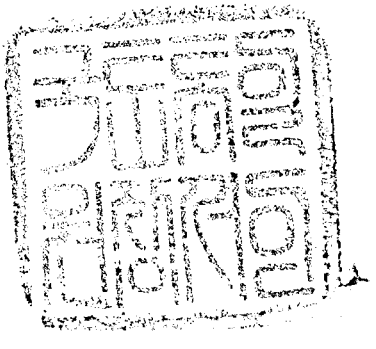
最近 北韓의 經濟·社會相

1989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자료를 발간하면서

최근 정부가 통일논의 및 북한자료 개방조치를 실시한 이후 국민들이 북한자료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증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중에는 불법으로 발간된 북한관계자료들도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북한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욕구와는 달리 현실보다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미화됨으로써 오히려 보고 듣는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읍니다.

국토통일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실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자료들도 동시에 개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본 자료는 당원 조사연구실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 사회과학연구소의 S교수를 초청, 『최근 북한의 경제 및 사회실상』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던 바, 이때 녹음한 S교수의 이야기를 풀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S교수는 평양과 북한의 각 지방도시들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한국방문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을 다녀온 분입니다. 그러므로 본 자료는 북한에서 직접 발간된 자료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보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본명을 밝히거나 사진자료는 게재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년 2월

조사연구실장 최 문 현

차 례

Ⅰ. 강연내용 ····· 3

Ⅱ. 질의·답변 ····· 33

Ⅲ. 슬라이드 상영과 설명 ····· 47

Ⅰ. 강 연 내 용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곳은 아니나 국방대학원 등 몇 곳에 가서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 통일의 문제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하고는 아마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데 가면 이념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바르게 생각하자든지,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북한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읍니다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건중심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읍니다.

다시말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념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 사건만 이야기하겠읍니다. 제가 한국와서 놀란 것은 북한문제를 직접 다루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북한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폐쇄사회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나의 의무감으로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저는 북한을 가는 것이 어떤 가족방문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로서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아니 자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서로 그런 정보교환 목적 비슷하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아마 북한에 있는 여러 시골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제가 시골에 가서 일주일동안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이 생활하는 그 방에서 같이 자고 지내면서 생활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자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양을 통해서 본 북한은 평양 밖의 북한과는 완전한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도시가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건『수령, 어버이 수령님이 계시는 혁명의 수도』라서, 배급도 평양이외의 지역과는 다르고……,

제가 오늘, 평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읍니다.

평양 밖으로 나가며는 첫째,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북한 전역에 어린 아이들이 사탕을 하나 사먹을 상점이 없읍니다. 이 말을 하면 아마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윤곽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다 자세한 것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평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잠잘 여관이 없읍니다. 여관이 없어요. 큰 도시에 외국인들이 가는, 예를 들면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 원산 같은 데를 가면『송도려관』이란 곳이 있고, -려관이란 호텔을 려관이라 하지요- 거기는 외국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러나 다른지역에는 려관이 없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마을마다 초대소라는 곳이 있읍니다. 초대소가 있어서 평양에서 안내하는 분이 저하고 같이 가서, 만일 제가 민박을 하게 되면, 그 분은 초

대소에서 자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대소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저 보통 집 같은데 방이 한 열개쯤 있어요. 저도 초대소에 가서 자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여인숙 비슷하게 만들어 놨읍니다. 여인숙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식당이 없읍니다. 북한에는 평양 밖에 나가면 식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간첩을 보낸다고 해도, 첫째, 잘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한 마을에 가서 당신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 거의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한 사람이 만약 학교 선생으로 그 곳에 임명을 받아 오면 -延社郡에서 봤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지냅니다. 이동이라든지 뭐 다른 데로 영전이라든지 -영전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그런 단어도 없지만- 그런 게 없어요. 특수한 사람이외에는 그런 이동이 별로 없읍니다. 제가 가 본 한 마을에 의사가 -제가 어느 때는 그 郡의 病院長 집에, 제가 있었읍니다만- 있었는데, 그 원장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임한 이래 계속 그대로 있읍니다. 그러니 임명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읍니다. 이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혁명이후, 즉 6.25가 끝난 이후에 그들은 그 모든 인민들을 다시 배치를 했읍니다. 배치를 한 이후에 -배치할 때 이제 지주계급, 지식계급들은 전부다 그들의 표현대로 농사짓는데 시골에 보내서- 지주들이 시골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농사짓고, 일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걸 못한 사람들은 자연도태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은 다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시켰

읍니다. 내가 우리 한국에 오면 종종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해 오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옛날 북조선에서 사실 때에 지주였읍니까? 혹은 노동자였읍니까?"

그런데 지주였다 하는 사람들은 열명 가운데 열명 모두가 옛날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 머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읍니다.

이제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농사가 지금 — 특별히 제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그들도 그것을 조금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사회주의, 북조선 경제는 우리 같으면 농업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나아져야 하는데, 해마다 생산량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점점 저하되가요.

그래서 제나름대로 이를 진단해 보니까 사회주의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주의혁명 이후, 즉 사회주의 경제의 초기단계는 아주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아니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성장합니다. 왜냐하며는 평준화를 한다 하면서 농지개혁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거기에 참 희망을 걸고 우리에게 유토피아의 세계가 오는가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은 중국도 그랬는데 모택동씨가 大長征을 끝내고 국민당을 몰아내고 그 뒤에 이제 천하통일을 한 후에 중국의 모든 인민들은 아주 열심히 일했고요. 그러나 한 10년 된 뒤에 보니까 그게 안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통제』

할 길이 없어서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 가지고 모든 지식의 평준화를 하면서 학교도 다 문을 닫고 했잖아요. 지금 북한 역시 처음에는 경제가 아주 우리 『남조선』보다도 훨씬 앞서 나갔고 그 성장속도가 빨랐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될 때에 김일성씨가 크게 실수한 것이 그들이 남한의 군사력과 미군에 대한 군사력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해 가지고 경제건설을 중공업부터 먼저 시작했읍니다. 그것은 큰 실수였읍니다. 중공업을 건설할려면 그게 자본이 뒷받침되야 되는데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 형성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가자본밖에 없읍니다. 국가자본 형성은 많은 지하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북한에는 지하자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석탄같은 거 뭐 이런 것밖에 없으며, 또 좁은 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중공업이 발달되지 않읍니다. 공산주의 세계, 사회주의 세계의 큰 잘못은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는데, 인민들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짜 가지고는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 가려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본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할 자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민경제 형성이, 즉 개인자본 형성이 안되니까요. 개인자본 형성이 안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중공업을 시작해 가지고 결국 경제파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는 이제 완전히 뒤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한국, 우리 『남조선』하고 비교하면 결국 75년경 이후부터는 같이 경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가지고, 한 10여년 이상 지나왔읍니다. 북한은 중공업을 건설하면서 농지개량 등

농업도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이들은

"토지 분배원칙에 의해서 처음으로 머슴들이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나

자기들의 소유는 아니지요. 그러나 집단농장 체제가 되며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는다 했으니까 옛날에는 지주들에게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내가 그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세끼 밥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 본능적인 어떤 것이 생겨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쌀을 내가 생산하더라도 그 쌀이 내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지요.

지난 9, 8, 7, 6월 이 넉달동안은 평양이외에 북한 전역에 쌀 한톨 배급이 안되었읍니다. 모두 다 옥수수, 밀, -밀을 이번에 몽고에서 많이 가지고 왔읍니다만- 그래서 밀밥을 많이 먹었읍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하고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밀밥을 먹든지, 옥수수를 먹든지 -옥수수를 가루를 내가지고 국수를 해먹고, 많이 해먹어요.- 세끼를 먹는 건 틀림 없어요. 세끼를 먹어요. 세끼를 먹으니까 이것이 유토피아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 이상 더 1년을 기다려 봐도, 2년을 기다려도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란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이제는 "혁명과업을 완수할 때에는 우리들이 쌀밥을, '이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꺼다. 그러니까 남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가 참으로 허리띠를 조르고 기다려라"하

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가 없지요.

조금만 옆길로 나가 이야기 하겠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농부 한사람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읍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방에 잘 때에는 물론 방 도청장치를 만들어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뭐 들에 나가면 곡식이 자라는 곳으로 나가면 도청장치가 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하고 며칠 있으면 친구가 되지요. 친구가 되면 이 사람들도 그저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꾸 묻습니다. 그럴 때 농민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농사를 짓느냐?"고 하면, 우리 같으면

"농사를 지어서 알곡이 많이 떨어지면 나한테 더 많이 떨어지니까 열심히 농사짓는다" 혹은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에는 반대급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북한에 있는 노동자나 농부들중 당성이 좀 강한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가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라고 대답합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결단코 북한에서는 노동쟁의가 일어나지 않읍니다. 노동자의 파업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고, 뭐 동학란과 같은 농민소요가 일어날 것도 아니고, 절대 일어나지 않읍니다. 그러니 뭐 노동자들의 의식구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혁명과업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그리고 매일 배급받는 것은『수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자기 노동의 댓가가 아니고『수령님께서

무료로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님』에게 감사만하지요.

저도 자유주의 세계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진행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상점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 사탕을 사먹을까? 장난감을 살까? 또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묻잖아요? 식당에 가서도

"너 짜장면 먹을래 뭐 먹을래?" 묻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 짜장면 사 주세요."

뭐 이래가지고서 서로 선택하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식은 없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걸 몰라요. 선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청년들이 다 배급만 받았기 때문에, 이 배급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거고, 무상으로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하는 것은 『혁명과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수령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저 이말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마디하고 넘어 가겠읍니다. 금강산에 가보니까 금강산 입구에 이렇게 써 놨어요. 『백두산과 금강산도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모든 자연들도 『수령님』과 당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민도 당신이 왜 있고, 존재하느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존재가치를 물어 봅니다. 그러면 대학생이고,

농민이고 간에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나의 존재가치는『수령님』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있고, 그래서『수령님』과 당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 왜 농사 열심히 잘 지어가지고 '이밥'도 먹고, 좀 이렇게 하지 생산품목이 이게 뭐야 말이야?"

이 말씀 드리는 중에 여기 이것을 잠깐 보십시요. (북한에서 가지고 온 밤을 몇 개 보여 주었음.) 제가 북한에 갔다 온지 한 2주, 3주 됐어요. 3주전에 제가 올 때에 저보고 먹으라고 준 밤입니다. 이게 북한산 밤이라구요. 여기 놔둘테니 나중에 보십시요. 제가 손님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길래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 그 청년에게 제가

"당신들은 왜 열심히 농사를 안짓느냐?"고 물었어요.

여러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이 이런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농사지어서 우리 입에 들어와요?"

조금 반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소변 3번 하고요, 대변 한번 하면 해져요"

"무슨 말이야" 하니까

"집단농장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로 감시를 하고 뭐 이러했어요. 그러나 한 마을에서 같이 평생을 살다 보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젠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젠 한가족같이 살아요. 몇 십년을 같이 사니까, 그리고 서로 결혼해 가지고, 얼키고 설키고 친척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옛날같이『혁명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 반동분자다』하는 뭐 그

런 고발이 없다구요."

이젠 북한사회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일을 하다가

"야! 소변 한번 보고 와"하면 소변하러 가서는 뭐 한시간 아니면 30분……, 그러니 소변 3번하고, 또 대변하러 간다 해가지고는 한시간 놀다 오고 이러면

"하루 소변 3번하고, 대변 한번 하면 해진다."

이것이 오늘의 북한의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쌀을 생산해도 쌀이 자기들 입에 안들어 오거든요.

농사 이야기를 마저하고 지나 가겠는데, 금년 10월말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떤 협정을 맺었느냐 하면 북한의 쌀 1kg을, 중국의 옥수수 2.5kg과 바꾸기로 했읍니다. 북한에서 나는 쌀을 인민에게 다 먹이면 북한사람들도 그저 50 : 50으로 먹을 수 있어요. 쌀반, 잡곡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수출할 품목도 없고 또 인민들에게 먹이고 사료도 쓰고 해야 하는데 생산량은 적고 하니까 쌀을 가지고 가서 중국하고 2.5배의 옥수수로 바꿉니다. 이것은 추수 이후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헌데 제가 볼 때 그들은 먹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북한을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오면 丹東 아닙니까? 丹東이나 도문에 가보면 신의주로 넘어가는 압록강 철로 옆에, 丹東稅關 앞에 모두 줄을 쫙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의주로 넘어갈 때 가지고 갈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따리는 잘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싸놨어요. 그런데 그건 이불, 헌옷 같은 것들, 그리고 엿뭉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경무역은 뭘 하느냐 하면 중국에서는 옷, 이불, 엿……. 대개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데 제일 환영을 받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생활필수품, 치솔, 치약, 특히 치약, 비누 그 다음은 수건 이런 것들이 아주 환영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가면 엿 한근에 명태 3근하고 바꾼다 이겁니다. 변경무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절대 돈을 안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3년전만 하더라도 북한돈하고, 중국돈하고의 교환비율은 1 : 1이었고, 1년전이나 지금도 공정환율은 북한이 조금 높지요. 중국의 인민폐도 참 가치가 없지요. 지금 중국돈의 공정환율은 미국돈 100불에 중국돈 372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자면, 중국돈에는 외화폐가 있고 인민폐가 있는데 외화폐로는 100불에 372원이지만, 인민폐로 내가 암시장에 가서 바꾸면 현재 800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돈의 화폐가치가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없는 중국 인민폐라도 북한 암시장에서는 중국돈 1원에 북한돈 40원입니다. 여러분들 중 지금 "아!" 하는 분들은 처음듣는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내가 아는 분이 오백원어치의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이것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는, 북한돈 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척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북한의 큰 공장에서 봤읍니다만, 거기서는 노동자들이 점심때가 되면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 가지고 다음 호박을 썰어 넣고, 거기다 옥수수 가루를 넣어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모든 북한 인민들이 점심은 직장에서 다 먹습니다. 직장에서 다 먹어요. 지금 북한의 경제문제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밀밥을 많이 먹고요. 저번에 김일성씨가 몽고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몽고하고 맺

은 협정에 의해서 밀을 많이 들여 왔는데, 이런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한달정도 됐읍니다. 저와 같이 갔던 사람이 버스를 한번 타고 싶어서 버스를 탔읍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싸움이 났다고요. 어떤 사람 둘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버스 운전수가

"야! 이 종간나새끼들, 밀밥 먹고 무슨 힘이 있어서 싸워" 했다고요.

그런데 아마, 마침 그 버스 안에 사회안전원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 버스는 더 운행하지 못하고 그 운전수는 잡혀 갔다고 해요. 결국 이 운전수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아무 의미없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반사회적인 말을 한 셈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9.9절』에 다섯가족이 있는 집인데 배급나온 것을 보니까 돼지고기 3근, 두부 4모, 엿 한봉지, 명태 6마리 이렇게 배급이 나왔더라고요. 『9.9절』이라면 북한에서는 최고의 명절아니겠읍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도 너무 좋아서 뛰고……. 이것이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던 북한이예요.

중국 국경지대를 넘어가면 -옛날에는 넘어갈 때 그렇지 않았는데 올림픽을 시작하기 한달 전부터는 물건의 포장지를 이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 중국 신문으로 포장을 했으면, 그것을 다 뜯어버리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포장지로 다시 포장을 해줘요. 왜냐하면 중국 신문에 남조선 소식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신문을 북한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만일 그 교포가 북한의 신의주에 있는 자기 할머니집이나 혹은 이모네 집에 도착하면, 그 집에서 열흘간 있겠다고 할 때 체류기간을 신고하게 되면, 그러면 열흘간의 배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6개월전까지는 외국에 있는 가족이, 즉 교포들이 조국을 방문할 때는 체류기간 배급을 100% 쌀만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북한 주민과 똑같이 70% 잡곡, 30% 쌀 이렇게 배급합니다.

옛날에는 열흘 있겠다고 신고했다가 한 일주일있다 가면 3일분은 그 가족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대개는 열흘있다 갈 사람도 20일 있다 가겠다고 신고하여 배급을 더 받아 내고 했읍니다. 그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중국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북한사람들 사이에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가족들이 중국에서 올 때에는 물건들도 가져오고 배급도 더 탈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정책도 바뀌어 가지고는 만일 열흘있겠다고 신고했다가 6일만에 가면 4일분은 다시 돌려줘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북한경제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예요.

이러한 사정은 북한에 가서 제가 실제로 듣고 봤읍니다. 이와같이 현재 북한에서의 생활필수품의 절대부족은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평양 밖으로 나가서 치약과 치솔을 가지고 양치를 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읍니다. 당간부들이나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외에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손가락에다 소금을 찍어서 아침에 양치를 치는 것을 봤읍니다. 그뿐 아니고…….

요즘 그들은『새로운 200일 전투작전』을 시작했읍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농장이나 공장에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정신교육 같은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생산도 당적 방법으로, 생산도 정치적 방법으로 새로운 전투를 위하여 생산에 앞서 정치사업을 하자』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알곡생산을 열심히 하자든지 그런것이 아니고, 정치·당 이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북한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읍니다.

농민들이나 혹은 일반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가 없느냐 하면, 제가 세계의 60여 나라를 다녀왔지만,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외부세계를 모르고 있어요. 집에 가면 라디오가 다 있읍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라디오는 실제로 끌 수도 없고 켤 수도 없는 라디오예요. 그리고 벽에 걸어 놓고는 아침 5시 30분이 되며는 -10월 1일부터는 5시 30분, 여름에는 5시- 방송이 시작되어 농민은 물론,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그때에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혁명과업에 나오고 공작사업에 나와야 합니다. 일어나서는 조반을 해먹는데, 재미있는 것은『매대』란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가족이 간단한 사람은 15일분의 양곡 배급받을 때에 양권을 배급받아 가지고 거기서 아침·저녁으로 밥을 타 먹으면 양이 많답니다. 그러나 가족이 많은 사람은 15일분의 양곡을 배급받아가지고 해먹는 것이 양이 많고요. 북한 주부들은 물론 참기름이 뭔지 그런 것은 전혀 모릅

니다. 그리고 아무리 귀빈들이 오는 식당에도 후추가루 같은 것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후추가루가 북한에서 안나는 모양이예요. 그러나 고추가루 같은 것은 내놓고 후추가루 같은 조미료는 내놓지 않읍니다. 외부에서 농산물 수입은 일체 안하는 거예요. 일체 안하지요. 물론 더 급한 것이 많으니까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을 그런 돈이 없지요.

그런데 어디든지 가면 요즘은 타작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북한의 농촌에 가보면 『수령님 알곡털기 작전』 이렇게 써 붙여 놨어요. 마을마다 그러니까 타작을 하더라고, 이 타작은 수령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양공항에 내려서 들어가는 데 벌써 그 위에다가 『수령님 알곡털기 작전』 이렇게 써 붙여 놨더라고요. 하여튼 시골에 가면 산 같은 데도 이 조그만 야산에도 평평한데다 크게, 어떤 데는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전기불까지 선을 끌어다가 이렇게 써 놨읍니다. 『땅에 묻힌다 하여도 당의 은혜, 당이 없으면 나는 못살아』 이렇게 써놓고요, 요즘은 또 당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 부르면서 결국은 그런 노래를 많이 보급하더라구요. 당은 김정일이거든요. 김정일을 중앙당이라 하지 않읍니까? 『당은 나의 어머니,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당을 생각하며 노래부르자…….』

장관님과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방방곡곡에 텔레비전 중계탑을 세워서 북한 텔레비젼을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하면 우리 학생이나 우리 한국사람들이 북한 사회생활을 전부 알게 된다고요. 지금 북한 텔레비젼이 중국에 있는 우리 200만조선족에게 다 공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족들이 사는 곳에 가 보면 북한 텔레비젼을 보는 사람은 아

무도 없읍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일본에는, 자유주의 국가인 일본에는 조총련이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이지 북한에 있는 공장, 제가 몇군데 가 본 공장도 전부 다 조총련에서 와서 움직입니다. 방직공장이라든지 뭐 봉제공장이라든지……, 그 분들 하고 제가 홍콩에 같이 가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넋두리를 이렇게 하더라구요.

"제가 한 8년전부터 이렇게 물려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남조선도 못가보고……, 이것은 합영회사를 하자 이래 가지고는 이제는 조국을 위해서 회사를 하라 이겁니다. 조국을 위해서요. 이익이 나도 한푼 자기가 가지고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것은 조국을 위해서, 혁명과업을 위해서 회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모자라면 또 갔다 주고 이럽니다."

이 조총련 사람의 넋두리가 『지금와서는 이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기는 또 살아갈 수도 없다.』 이겁니다. 뭐 이런 제도는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합영법에 의해 가지고 조총련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아주 유일하게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 후회하는 것 같아요. 뭐 참으로 정신이 약간 돈 사람 이외에는 자기 재산 안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받았다는 건 자기도 훈장 두개 받았데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외국기업이 와서 합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읍니다. 맨 처음 할려고 했다가 이제 다 그만 뒀지요. 성공한 예도 물론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합작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지 몰라

도…….

여러분은 북한 텔레비젼을 잘 봐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북한 텔레비젼방송 한『프로』만 이야기해 주겠읍니다. 얼마전에 10월 15일인가 16일날인가의『프로』나온 거 보니까, 어떤 부부가 둘이서 싸웁니다. 싸우다가, 집집마다 김일성 사진하고 김정일 사진이 붙어 있지 않읍니까? 그 사진에 눈이 갔다구요. 눈이 가서는 싸움을 갑자기 그칩니다. 그쳐 가지고는 둘다 막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고는 남자가 있다가

"여보, 내가 순간적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은공을 잊었구려" 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잘못한 것을, 기독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그 부인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중앙 어머니의 은혜, 그 은공을 잊어버리고 당신에게 달려 들었다" 하면서

둘이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예를 들면 드라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걸 보면 막 웃지 않겠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울고 있어요. 같이 눈물 흘려요. 그 의식구조가 그렇게 됐다구요. 우리는 보고 막 웃을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웃는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표정을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우스워 죽겠어요. 그러나 웃지도 못하겠고, 옆에선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진정으로『어버이 수령님』을 섬기고 있어요.

통일정책에 꼭 여러분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북한 주민들의 입으로만『수령님』을 존경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 당간부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학생이나 한사람도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존경심, 그 절대심, 절대권력, 절내 그러니까 『김일성 원수님』에 대해서 절대성, 무조건성에 대해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북한주민 전부다가 김일성이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이예요.

그런데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의 통일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김정일에 대해서, 특별히 지식층이나 당 간부 등과 같이 이야기 할 때에 조금 우회적으로 비꼽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면 회담을 하러 가셔서, 여기 실장님도 회담하러 몇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들이 침묵을 지키면 그건 여러분에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 사람들의 의식구조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노동자고, 당간부고 학생이고 할 것 없이…….

내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했을 때, 북한 대학생들이 성경이란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아니, 선생님 예수가 누구예요? 왜 선생님은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을 믿지 않아요?" 이래요.

북한대학생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거, 성경책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모르지요. 그런데 뭐냐하면 김정일에 대해 제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공식적으로 대답하는 건 딱 한가지 있어요.

"네, 아직까지 혁명과업이 완수되지 않아서 대를 이어서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대답 이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김정일이 절대 김일성의 대를 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북정책을 세울 때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대를 이으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시간낭비에요. 절대 못됩니다. 그건 내가 아주 강하게 느낀 직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 안 해봐서 몰라요. 副部長이란 자와도 이야기 해 보았지만 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사회주의 나라에도 우리와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마음 풀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다고요.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 통일정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동독이나 서독을 다녀 봤는데 동독과 서독은 통일 안됩니다. 절대 통일 안됩니다. 소련과 미국간에 3차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기 전에는 서독·동독은 통일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통일은 아주 극적으로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한번 연구하고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북한은 근대국가 조직도 아니고, 근대국가의 사회조직도 아니고, 근대국가 체제도 아닙니다. 첫째,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종교집단입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사람들이 많이 써 왔던 구호들을 여러분은 다 알지요. 『당과 수령님께 대대손손이 생명을 바쳐 사는 것이 삶의 보람이다』, 『삶의 기쁨도 행복도 수령님을 바로 섬기는데 있다』, 『수령님께 절대 복종, 절대 신뢰, 무조건 따르자』, 『먼 미래까

지 우리의 행복을 보호하는 어버이수령님 김일성 원수님께 무한한 충성을 바치자』,『어버이 수령님 따라 죽기를 맹세하고 총진군하자』,『어버이 수령님과 나의 운명 함께 하리』,『수령님 김일성 원수님과 우리의 중앙당 김정일 동지께서는 물과 공기처럼 한시도 없으면 우리는 못살아』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들은 진정 믿고 있다구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령님』은 신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김일성 원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수령님』이 죽어버리면……, 재미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수령님』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보통 인민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수령님이 돌아가시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되시는 김정일 동지께서 중앙당으로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어떤 우연한 기회가 아니면, 그런 것을 공식적인 기회에 이야기하면 큰일나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그 자체가 반동입니다. 그런 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식구조도 없구요. 뭐

"김정일 동지가 수령님을 이어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선택을 묻는 단어도 없고, 그런 언어도 없읍니다. 그런데 난 외국에서 왔으니까 전 겁도 없이 지껄인 말들이 많읍니다. 결국 이들의 대답은

"선생님 왜 그렇게 불경한 말씀을 하십니까? 수령님이 돌아가시다니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령님이 천살, 만살까지 살꺼냐?"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수령님의 정신은 영원한 겁니다."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심으로 수령님의 정신은 영원한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이 『수령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邪敎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지면 그날로 붕괴합니다. 그날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확 무너져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신문을 본 게 생각이 나는데, 어느 邪敎의 敎主가 독약을 주며, 먹고 죽자하니까 그들은 독약을 먹고 다 죽었지요. 뭐 오대양인가, 육대양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와같이 오늘 자유세계에서 머리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한번 종교에 미치면 독약먹고 같이 죽자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외부세계의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령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틀림없어요. 오늘도 북한에는 『수령님』께서 부엌칼, 총칼, 곡괭이, 삽, 낫 다 들고 남조선을 향해서 우리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내려가라 하면 안 내려올 사람 거의 없어요. 그들은 원자탄이 터지든 뭣이 터지든 다 들고 내려 옵니다. 그 신념은 굉장해요. 북한 주민들의 신념은 통일입니다.

남조선에 와서 제가 보니까 통일에 대한 신념이 없어요. 남북회담을 하는데 있어서도 피부에 느끼는 그런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을 주어야 되겠다!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같은데 가서 설교할 때는 되게 나무랍니다. 한국교회 같은 데서 예배드릴 때, 뭐 건성으로

"통일이 빨리 오게 해 주세요." 하지만

남한은 이제 통일을 위해 기도도 안해요. 조국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조국이라 하면 남조선까지 포함해서 조국인데, 남조선에는 조국이라는 개념이 남한밖에 없더라고요. 남조선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고작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을 용서하십시요. 올림픽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전부가 조국이라고 하면,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지, 북조선을 위해서는 기도 안해요. 모두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결국 남조선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북한)는 괴뢰들이 사는 곳이고, 저기(북한)는 뭐 내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남조선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다 틀려 먹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통일정책 잘못했어요. 통일교육 잘못했어요.

북조선사람들은

"밥을 못 먹는 것도 통일이 안되서 못 먹는 거고, 내가 못 입는 것도 통일이 안되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수령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고, 수령님을 우리가 바로 섬겼으면 벌써 통일을 했을 건데……."

통일을 못한 죄도 자기들에게 돌려요. 교회에서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리듯이 『수령님』께 안돌린다구요.

"우리가 수령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통일이 안되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집념이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굉장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야, 총칼 들고,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삽 들고 내려 가자" 하면

내려 올 사람 한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구요. 김정일이 말 절대 안들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또 김정일이는 신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의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신은 한분밖에 없어요. 그 신이 죽고 나면 누가 그 신을 계속 잇지는 못해요. 만일 북한이 하나의 정치적인 체제인 것 같으면, 독재정권이 망하고, 무너지면 또 다른 독재정권이 들어가고, 스탈린이 죽고 나면 후르시쵸프가 들어가고 하듯이, 하지만 북한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제도, 다른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와 달라서 북한은 그렇게 되 있지 않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력이 김일성이의 권력을 대신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으면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김일성과 같이 떠받들어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없으면 북한사회는 침몰됩니다.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제가 역사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민족우위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조선족의 우위론을 주장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독재정권에 시달렸다 해서, 몇년 시달렸다 해서, 독재정권에 좀 속았다 해서 막 분해 가지고 분신자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똑같이 슬기롭고 똑똑한 조선족들이예요. 이들

이 40년을『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북한의 인민들은 40년을 속아왔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어요. 남조선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다 수탈해 가고 거지, 실직자들이 우글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 우스운 이야기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선생님, 어디서 오셨읍니까?"하고 묻기에

"내가 미국서 왔는데 지금 중국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미제국주의놈들에게 붙잡혀 가서 얼마나 고생했읍니까?" 이래요.

대학생들도 제가 미국 갔다왔다고 하면

"미국 제국주의놈이 선생님같이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다." 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선전해 놨다구요.

그리고 올림픽개최때 북한이 안 온 이유도 공동주최를 안해서 안온 거 아닙니다. 자기네 준비 하나도 안되 있었어요. 내년에 개최될『사회주의 청년학생 축전』준비는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민들에게 올림픽의 '올'자란 말도 안 했어요. 물론 평양의 17급 이하 인민들은 지금도 남조선에서 올림픽을 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17급이상은 그들의 일일정보를 통해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7급이상은 다 알아요. 알지만은 시골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말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이나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발행하는 로동신문이나 다른 신문들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신문이라 하지만 한국, 자유주의 세계처럼 돈주고 사는 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각 관공서마다, 학교마다 이렇게 배

달되니까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들어오고 하는데 신문은 집에 배달도 안해 주고 어디 가서 신문보겠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문이라는 것을 한번도 안 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북한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와 같이 그런 혼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통일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비난을 중지한, 비난방송을 중지한 것은 천만다행이었읍니다. 큰 승리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여기서는 모를 겁니다. 못 느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송교수라든가, 어떤 분이 한 일주일전에 어디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내가 잠깐 들으면서 그 분의 말을 고쳐주었읍니다. 그 분이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판문점에 가니까 북한에서 판문점에 내려온 기자들이

"우리도 올림픽을 중계, 우주중계를 통해서 잘봤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남한에서 올림픽을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동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거 잘못된 판단이예요.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예요. 북한주민들은 올림픽을 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요가 일어나겠어요. 동요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올림픽을 성공했다고 해서 북한사회에 동요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가 그 일선지구의 군관동무를 -제가 군관동무하고 대담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 왔는데- 만나보고 이번에 크게 느낀 게 뭐냐하면 우리가 북을 향해서 비난 방송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죠. 제가 올 때까지도.

『노태우○○』 등등 그들은 대단하게 욕지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욕했을 거예요. 북한의 지도계급이나 혹은 남조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조선에서 비난방송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요놈들이 뭐 어떠한 음모를 꾸미기에 우리들을 욕하지 않나?"

그런 말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좀 심상치않다 이거지요. 제가 군관동무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서로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나?"하면

"대화를 못하는 책임은 다 남조선에 있다." 이렇게 돌리지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남조선을 보고 욕을 하나?"하고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제가 UN에서 노대통령이 연설했다는 것도 제가 이곳에 와서 알았읍니다. 그것도 북한신문에는 한줄도 안납니다. 로동신문도요. 다른 신문은 내가 못봤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노대통령이 북한을, 평양을 가서 절대로 회담은 안됩니다. 못합니다. 그들이 안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탁상공론이고 절대 노대통령 평양 못갑니다. 내가 볼 때는 만약 이렇게 되면 갈 수 있겠지요. 『노태우○○이 이제 회개하고 어버이 수령님

에게 이제 경배드리러, 인사드리러 온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갈 수 있지요. 북한 사회가 노대통령을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해놨는데, 그 대통령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노대통령은 사람이고, 보통사람이고, 『김일성』은 신입니다. 신과 인간이 대좌할 수는 없읍니다. 신과 인간이 대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노대통령 뭐 평양 정상회담을 위해서 정력 너무 많이 쏟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 불가능할 것 같애요. 그러니까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면, 노대통령을 위시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는 자신감있게 모든 북한자료를 개방하고, 그 다음 우리국민들에게는 『너희들이 3국을 통해 가든 4국을 통해가든, 판문점을 통해 가든 어디로 땅굴을 파고 가든, 북한에 갈 사람 다가라.』

이런 정책을 쓰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자유의 씨앗을 심어 주고 왔으면 왔지 그들에게 배워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있게 못하냐 말이예요.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어디로 오든지, 너희들이 오는 거 환영한다. 학생들이 천명올려면 천명 다 환영한다. 만명 올려면 만명 환영한다.』

학생회담은 물론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한양대학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갈 사람들 다 가라고…….』 여러분들 조금 정책을 이렇게 쓰라고요. 통일원이 각 대학에서 북한방문단을 모집하라고요. 학생 북한방문단을 모집하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각 대학 대표들을 우리가 다 보내준다.』고 하고 통일원에서 명단을 받아 한 대학에서 열명이면 열명, 스무명이면 스무명 방문단을 구성하면 한 몇 천명 안되겠어요? 이것을 북한에 제시하라고요. "우리 학생대표들이 이제 백두산까지 가고 싶어한다. 그러니 방문단을 보낸다."고 하면 절대 북한에서 안 받습니다. 몇사람 학생대표라면 평양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백명만 넘어봐요. 몇천명 그렇게 보낸다고 해 봐요. 그러니까 몇 천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판문점까지 우리가 수송을 하고 판문점에서 너희가 데리고 가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전부 트럭이 올거예요. 북한, 평양 밖으로 나가니까 수송수단이 버스가 없어요. 전부 다 화물차더라고요. 화물차에 사람 꽉차서 타고 다녀요. 기차도 말이죠, 통행증 있는 사람만 가는데…….

물론 사회주의 나라가 제일 뒤떨어진 것이 교통하고 통신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북한은 그게 더욱 낙후했어요. 기차도 말이죠. 뭐 원산서 평양까지 기차를 타 보았고, 평양서 신의주까지도 타 봤는데, 저는 물론 차관급이상이 타는 침대칸에 타고 가지만, 인민들이 타는 다른 기차는 아우성이예요. 내가 여기 사진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보십시요. 여기 보면 남자는요 거의가 군복을 입는 사람인데도 보면 그저 막 매달려요. 어떤 사람은 매달려서 창문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 몇 천명 간다고 하면 수송수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걸 봐라 이말이지요. 만약 북한이 받지 않으면 『너희들 보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받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이거요. 북한 학생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고 『우리 천명 보내면 너희도 천명 보내라』 이렇게

하면 북한은 절대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통일정책을 추진하려면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북한을 알리는 것도 좀 과감하게 하십시요. 그렇게 하는 길이 제 생각에는 학생들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대학생들 만나 보니까 말이요. 내말 안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진을 보여 주니까 "아!" 하더라고요. 내가 북한 사진 보여 준다, 슬라이드 보여 준다 이러니까 학생들 좀 모이겠거던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서 1시간 강의를 하기로 했다가 4시간을 이야기하고 왔는데, 맨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여권 좀 봅시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진지하게 알고 싶어하는지 4시간 했어요. 4시간 후에야 내 말을 믿더라고요. 믿어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반공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실패했다는 이유가 아니겠읍니까?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돌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II. 질의·답변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조금 받지요.

사회주의나라 같으면 질문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거든 질문하시면 제가 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읍니다. 그런게 좋겠지요?

아직도 시골이나, 평양 밖으로 나가니까 양말신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같은 민족으로서 저는 북한에 가면 많이 웁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다시 넘어올 때는 입은 옷과 신은 양말 이외에는 내가 안가지고 옵니다. 다 줍니다. 옷이고, 뭐고 다 줍니다. 그렇게 비참해요. 내가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 체제를 비판하겠읍니다. 황주에 가니까 황주사과가 요런 요런(주먹의 끝부분만을 가리키며) 사과가 나와요. 그래 내가 물었지요. "옛날에 황주사과라면 우리 조선에서 유명한 사과였는데, 그 유명한 사과가 다 어디갔나?" 했더니 제게 변명한다는 것이 "예, 좋은 사과는 우리가 다 수출해요." 그러나, 실은 거름을 안주는 거예요. 농부들이 농장을 안 가꿔요. 밤도 그저 돌밤,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서 열매가 맺히면 따고……. 그래요.

질문 : 지난번에 그곳에 가서 공장을 몇군데 돌아보셨다는데 어떤 공장들을 보셨는지?,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북한에서 고위층들을 만났으면 어떤 사람들을 어떤 업무상으로 만났읍니까?

답 : 공장은 봉제공장하고 그 화학섬유 만드는 곳하고, 신발 만드는 곳에 가봤지만 아주 뒤떨어졌어요. 아마 해방후에 우리가 신던 그런 신 정도예요. 그러고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씨가 작년에 "왜 인민들의 신에 색깔을 넣지 않나?" 이렇게 말해가지

고, 지금은 평양에는 색깔있는 신발을 많이 신어요. 아이들이 나가 신던 그런 신 정도예요. 그러고 북한인민들은 김일성씨가 작년에

"왜 인민들의 신에 색깔을 넣지 않나?"

이렇게 말해 가지고 지금은 평양에는 색깔있는 신발을 많이 신어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의 신발을 보니까 평양에는 색깔있는 비닐신발 같은 것 신어요. 뭐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시골에는 그 색깔을 넣으라는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검은색이예요. 거기는 참 평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민위원장도 그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당간부들이나 해외동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고, 교육성 부부장 선생도 만나고……, 사회과학원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나라에는 전부 있어요. 북한도 있고, 소련도 있고……, 여러분들, 사회과학원 교수라면 연구원에서 정책입안도 하고 정책연구도 해서 국무원으로 보내든지 이러면 이것이 집행되지요. 그래서 사회과학원이라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러한 학자들도 만났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평양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을 보여 드리겠읍니다만, 그 큰 아파트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 안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가 없고 큰 홀로 되어 있는데, 노동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저녁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나가고……, 이런 것이 밖에서 보면 높은 아파트 빌딩 같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홀이예요.

질문 : 선생님께서 17급 이상은 일일정보를 보고 우리사정을 다 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주민의 대부분인 그 이하의 계층이란 말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 주민들은 자유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실정을 알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답 : 방송해 봐야 들을 매체도 없으니, 제가 볼 때는 한 길이 있어요.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교포들은 북한의 가족방문을 많이 합니다. 재중교포들이 가족방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포들 사이에

"북조선에 갔다오면 거지되고, 남조선에 갔다오면 부자된다."

이래요.

남조선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가운데 선망의 대상이예요. 그런데 북조선에 가면 가지고 간 것 다 빼앗기고, 또 갔다 오고나면 이것 보내달라, 저것 보내달라 이러 하니까 아주 귀찮아서 못가겠데요. 그래서 북한에 가족들이 있으면 뭣도 갖다주고, 뭣도 갖다주고 이래요. 중국에 있는 하찮은 것도, 아주 헌옷 같은 것도 북한에 가지고 가면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조선에 왔다 갔던 사람들은 남조선의 구제품 같은 것을 가져와도 중국 가면 아주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200만 교포들은 자치주 州長, 市長 다 만나서 이야기 해봤는데도 북한 집권자들에게 『저 몹

쓸 놈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신의주는 단동 땅 너머니까, 단동에 있는 단동역에서 물건 파는 한 아줌마가 있어요. 몸이 뚱뚱한 아줌마가 저보고, 평양에서 기차타고 오는 것을 보고 다 알면서도

"선생님 어디 갔다오세요?"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평양갔다 와요." 그러니까

"그 유들유들한 김일성이-돼지같은 그놈 안 뒈졌어요?" 이래요. 큰 소리로…….

강 하나 넘어서 저쪽에서는 김일성이『神』이고 이쪽에는『돼지』예요. 지금 중국에는 시장에서 어디고, 남조선에서 왔다고 하면 뭐 큰소리로

"아이고……," 칭찬이 대단해요.

그러나 북조선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큰 소리로 욕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완전히 정보가 개방되어 있는 만주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100% 남조선편이고, 정보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남조선 사람들은 지금 호기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늘 장관님하고도 제가 잠깐 이야기 했읍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延吉에다가 우리 조선국을 위한 기술학교를 세울라고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북한, 아니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우리 한국정부에서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방후에 김일성씨는 일본에 조총련학교를 세웠어요. 지금도 돈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세계인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일부가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에다 경제원조를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이승만대통령은 반일(反日)만 하였지 학교도 하나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의 형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제일 필요한 것이 교민정책인데 통일원에서 북한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교민정책을 세우세요.

자치주 80만 우리 교포들 가운데 중국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을 거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그중에 많은 사람은 6.25때 넘어가서 아직도 중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 조선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 북조선 국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조선 국적을 버리고 있읍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러나 그들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대단합니다. 참, 이번에 올림픽할 때요, 중국에 있는 우리 200만 동포들이요. 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핑계를 대었든지간에 온종일 올림픽 중계를 보고, 사천년만에 처음으로 참 목에 힘줘 봤다 이겁니다.

질문 : 좋은 말씀입니다만,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관계에 문제가 있을텐데요.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 : 중국정부의 고위층 사람하고도 많이 알고, 또 국무원에 가서도 제가 남조선 경제에 대해 보고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중국 고위층 사람들도 어느 한사람, 지금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북한 저것은 참말로 버린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읍니다. 국무원 위원들까지도요. 다 알아요. 나한테 국무위원이란

사람이 부탁한 게 있어요.

"선생님 가시면 한국정부에 말해 가지고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지금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주십시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국하고 거래를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는 한국하고 『휴전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인데, 『휴전협정』 관계하에 있읍니다."

정치적으로는 소련이 한국하고 더 빨리 접촉을 할 수 있읍니다. 소련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무런 장애가 없고, 그러나 중국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공산국가와는 달라서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입니다, 엄연히 문서가, 외교문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무원에 있는 분이 저한테 『한국에 가시면 어떤 수단을 쓰든지 이것만 풀어 주면, 우리가 한국하고 외교관계도 맺을 수 있을 거고 또 그러한 과감한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질문 :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북한을 갔다 왔는데 대체로 북한에서 평양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만을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안내에 따라 보고 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과 같이 북한 전역을 그 많은 시간에 관광하고 온 분은 참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궁금한 점은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나 하는 거구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와서 그런 건지?

답 : 지금도 여기(북한)에 가시는 분들에게 꼭 자기들이 보여주

는 것은 평양이며, 금강산에 데리고 갈 때에는 밤기차에 태워서 금강산에 딱 데려다 놓고 이럽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사회과학연구소 교수입니다. 북한당국에서는 내가 지금 한국에 와서, 통일원에서 이렇게 강연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질문(보충) : 교수님 혹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읍니까?

답 : 아니지요, 남조선 사람이지만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국시민입니다. 미국 시민이고, 중국 사회과학연구소 교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다 개방해서 보여 주어야지 제가 조국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듣고 막 웃으시겠지요. 그들이 내게 부탁하는 것이 여자생리대 기술을 도입해서 공장을 하나 유치해 달라는 거예요. 생리대를 못 만들어요. 여자생리대를……. 소비재 물건도 변변찮아 휴지도 두꺼워서 신문가지고 닦는 게 났지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여러가지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북한경제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게 보여주는 거지요. 안 보여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저를 북한친구로 보니까요.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고, 『수령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질문 : 말씀하시는 중에 북한의 권력세습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김정일이가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으로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형식적으로 김정일이가 대를 잇기는 잇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이가 절대 권력세습을 못 받는다는 것인지요?

답 : 김일성이가 오늘 죽으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지도자, 『당 지도자』께서 주석이 되겠지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 몇달을 안 갈 겁니다.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내가 느낀 감은 몇달, 아니 며칠도 안 가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김일성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념으로서 그렇게 하지만서도 김정일은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뭐 김정일이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20년 이상씩 후계자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실무를 담당해 왔지만 크게 나아진 것도 없어요.

질문 : 84년도에 합영법도 발표했고,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 주민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답 : 네, 시간이 없어 제가 말씀을 중단시킨 건 미안하지만, 김정일이가 지금 그렇게 모두 현지지도,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고, 한국 같이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됐다면 김정일이가 되지요. 그러나 옛날보다도 더 못살게 되니까 김정일이 아무 필요도 없다 이거지요.

질문 : 김선생님이 그걸 연구한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만약에 평양만 딱 개방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서 보면 좋게 느끼겠지요?

답 : 내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요.

평양에서 어떤 친구가 밤에 내게

"선생님 저 단고기 좀 사주시겠어요?"이래요.

보신탕을 단고기라 합니다. 개고기를

"단고기를 사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불고기 혹은 특별히 배급나오는 거 이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외화식당에 가서 내가 돈을 내고 사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는 북한주민들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자주 데리고 들어가지요. — 갈비집, 옥류관에 가서 냉면도 먹고 이러는데 —

"그래 내가 사주지" 이랬죠.

평양 뒷골목에 가면 3층 건물이 있어요. 『단고기집』이라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거긴 당간부들만 오고, 가면 좌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 평양 뒷골목에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되있더라고요. 포장도 안 되있고, 그 뒷편에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서울을 보던 학생들이 실제로 평양만 딱 봐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평양가면 타이루를 가지고 만든 건물이 좀 있어요. 평양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타이루를 가만히 살펴 봐요. 타이루가 이렇게 똑바로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건물외형은 이 타이루가 붙었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지적하면 노동자들이 노동의 댓가를 안 받으니까 아무렇게나 붙여 놓는 거지요. 그것도 누가 관리도 안하고……. 이번에 보통강여관에 들어갔는데, 보통강여관은 외국인들만 들어가는 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만일 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런 여관에 데리구 안 들어가

겠읍니까?, 그런데 말이죠, 거기 타올, 내가 금강산에서도 한 개 가지고 오고 거기서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이 타올은 우리 가정걸레만도 못하겠다고 할 꺼예요.

그런 것들을 본다든지, 휴지를 본다든지……. 전화는 아직까지 두드리면서(수동교환식) 하는데, 전화기는 제가 일주일 있으면서 한번도 쓸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았는데도 아침만 되면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전화기를 막 닦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전화기 몇년 닦았어요?" 하면,

"18년 닦았어요." 이래요.

그 아주머니는 전화기 닦는 임무만 맡았으니 평생 전화기만 닦는 거예요. 가서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보면 당장 직감하게 되요. 그리고 사회구조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여러가지를 보면, 뭐 첫째,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이게 아니구나, 지상낙원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평양만 보여 준다 하더라도 보내요.

질문 : 최근 들어 북한에서 교회, 개신교회 하나 하고 천주교회 하나를 짓고, 또 몇년 전에는 바티칸에 신학교육을 받으러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느끼신 게 없으신지요?

답 : 우스운 것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지은 것 모릅니다. 평양에 있는 우리 조선 인민들은……. 그리고 교회 건물들을 보십시요. 십자가가 없읍니다. 바깥에서 봐서는 그저 이상한 양옥건물 하나 지었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제가 예수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고기준 목사하고 한 세시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어버이 수령님께서 교회건물을 지어서 기독교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기독교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그리고 천주교회는 지었는데 천주교 신부는 바티칸에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부가 없읍니다. 신교 목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학생들을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예요. 북한은 완전히 외부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지은 교회는 가정교회를 여기에 옮긴 거예요. 그 뭐 그런 이야기를 할려면 한이 없어요. 다 자기들 평가 그대로 주체사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질문 :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쪽에서 선생님이 이런데 와서 얘기한 것을 알면 앞으로 지장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통일원만이 아니고 대학생들에게도 강의하시고……, 우리 사회내에도 침투된 간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답 : 오늘만 내가 여기서 본명(本名)을 씁니다.

여기 통일원내에는 간첩이 없는 줄 알고, 내가 혹시 잘못 짚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데 갈 때는 가명(假名)을 쓰지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에서 저한테 거액의 원고료를 제시하고 연재하라고 했읍니다. 그래도 저는 글 안 씁니다. 또 KBS에서 와서 심야대담프로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사람에게 이야기좀 해 달라고 했으나 저 TV에 안 나갑니다. 그래

서 글 안 쓰고, 텔레비젼 안 나가고, 다른데 가서 이야기할 때도 가명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나의 어떤 사명감이 있읍니다. 제가 북한을 떠날 때 그들이 뭐랬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북한 다녀 온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북한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지막 떠날 때의 말만 하고 오늘 제가 찍은 슬라이드 봅시다.

떠날 때는 사진을, 영화를 몇개 보여줘요. 그들은 언제든지 사진을 보여 주는데,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이 전부 죽는 거만 보여줘요. 일본 조총련에서 누가 배신해 가지고, 거 어디가서 죽는 것 그런 사진을 보여 준다구요. 사진을 보여주고는

"선생님 저와 같이 조국을 배신한 자에게는 비참한 결과만이 있읍니다."라고 말합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 가족들이 북한에 다 있읍니다.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영웅대접을 받고 있어요. 집도 좋은 것 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북한에 가니까 종교자유가 있더라, 뭐 이러고 그들이 찍어준 슬라이드 그대로 와서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북한은 전기사정이 아주 나쁩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북한의 시골에 가니까, 시골도 아니죠 뭐, 군소재지, 조그만 도시 같은 데에도 집집마다 호롱불 준비 안 해 놓은 집 없어요. 이 시대에 호롱불이 뭐예요. 저가 간 날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이 나갔어요. 불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호롱불 켜더라고요. 그만큼 전력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슬라이드 봅시다.

III. 슬라이드 상영과 설명

* S교수의 요청으로 슬라이드 사진 게재는 생략

슬라이드 1 : 이 건물은 북경에 있는 조선인민공화국 대사관입니다. 모든 자유주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에는 한 6개월전에 어느 날자에 어느 때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통지가 오고 저기(북경소재 북한대사관)에서 연락해 줍니다. 신원조사 다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자에 오라고 해서 이 대사관에 가면 파란 용지에다가 사진을 붙여서 별도로 통행증을 찍어서 발부합니다.

슬라이드 2 : 이것이, 보통강여관인데, 간판 밑에다가 저와같이 영어로 쓴 곳은 인민들이, 보통인민들이 저 옆으로 접근도 못합니다. 보통강여관이나, 고려여관이나 이런 곳은 보통인민들은 저기에 종사하는 사람이외에는 접근도 못합니다. 그러니 저 글자도 모르죠.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옷들을 조총련 계통에서 들여 와서, 일본서 많이 가지고 와서 배급을 주더라고요.

슬라이드 3 :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북한, 진짜 북한 사람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신고 있는 신발까지 다 『Made in North Korea.』 입니다. 저 사람은 제 운전수였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승용차는 『벤츠』하고 『볼보』밖에 없읍니다.

슬라이드 4 : 저이는 해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 동무입니다. 차관급이지요.

슬라이드 5 :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경대, 저쪽 두 사람은 만경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쪽 두 남녀는 만경대에 신혼 여행왔다 이거지요. 그래 제가 결혼하는 것도 여러번 봤는

데, 결혼하는 것도 그저 머리에 꽃하나 꽂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여러 가족하고 같이 사진 찍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봄에는 평양 같은데서 보면 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말 아니 일요일 같은 날 모여 가지고 누가 주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에 모여서, 가족끼리 머리에 꽃 꽂고 사진 찍는 그것이 곧 결혼식입니다.

슬라이드 6 : 저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체사상탑 밑에 있는 광장이고 이렇습니다.

슬라이드 7 : 평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개선문은 잘 아시겠고, 개선문 앞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조총련에서 와서 여행하는 조총련 모국방문단입니다. 앞에 여자는, 앞에 저 개선문만 설명해주는 안내여자동무입니다.

슬라이드 8 : 저걸 잘 살펴 보세요. 거 재미있는 것은 저 뒤에 보이는 어린이 놀이터 있지요.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북한에서는 유일한 놀이터인 것 같아요. 놀이터예요. 저건(회전그네) 주말만 돌더라구요.

슬라이드 9 : 저건 얼마전에 완공한 벽화입니다. 저 벽화는 김일성이가 개선하고 들어와서 인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슬라이드 10 : 이게 주체사상탑이고, 그 주체사상탑도, 재미있는 것은 저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특별한 손님 아니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전기 사정으로 그렇다 이러더라구요.

슬라이드 11 : 저 건물 보이죠. 저게 인민들이 사는 아파트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커텐도 없고 이러기에 제가 안에 좀 들어가 보자고 부탁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기회에 봤어요. 저 안에 전부 홀로 되어 있어요. 칸막이도 없고……,

슬라이드 12 :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옷을 보십시요. 물론 북한의 시골에 가도 옷이 똑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라서 옷이 똑같애요. 밑에 신을 보세요. 평양아이들은 이렇게 색깔 신을 신고 있어요. 그러나 시골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전부 다 검은 신이예요.

슬라이드 13 : 이것은 뭐 역사박물관 안에 있는 광개토왕비 모조품인데 저런 박물관에 가면 빨간 저런 팻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김일성이가 딱 와서 눈길만 한번 돌리면 『어버이 수령님께서 직접 이곳을 참관하셨다』고 팻말이 붙어요. 왼쪽에 빨간 것 있잖아요. 박물관에 가면 저런 게 많이 있어요.

슬라이드 14 : 이것이 낮에 열한시 반에 찍은 것인데, 그 주체사상탑 앞인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 남북적십자 회담할 때 보니까 그때 평양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던데 왜 다 어디있느냐?" 하고 지도원 동무에게 물으니까

"그땐 남조선에서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다 환영하러 나왔는데, 우리들은 남조선 모양으로 실직자도 없고 거지도 없읍니다. 모두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나올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슬라이드 15 :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두시쯤 됐지요. 그 때는 삼륜차가 하나 지나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아니 아직까지 저런 삼륜차가, 뭐 저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출퇴근 시간은 많이 붐벼요. 주말에, 일요일에 좀 붐비고요. 그런데 이 평양뿐 아니고 북한 전역의 도시에는 낮에는 사람을 아주 급하게 용무보는 사람 이외에는 보기 힘듭니다. 다 이래요.

질문 : 저기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입니까? 아니면 시멘트 포장입니까?

답 : 어떤 곳은 아스팔트 포장인데 어떤 곳은 시멘트 포장입니다. 저건 아스팔트입니다.

질문 : 그러면 밤에는 붐빕니까?

답 : 아니죠. 밤에는 나갈 때도 없고, 술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 마치면 집에 가지요. 집에 가서 밥 해먹고 일찍 자고, 북한 TV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다 일찍 재웁니다.

슬라이드 16 : 저 버스에서 내려서 오른편에 있는 건물이 지하철 역입니다. 저 지하철 역에 가서 한구간 탔는데……. 옆에 있는 화물차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뒤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읍니다. 평양에서도 화물차에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슬라이드 17 : 궤도버스는 출퇴근 시간만 움직이고, 어쩌다 한번씩 움직이고, 평양에도 버스가 많이 안 보일 뿐 아니라, 또 군인트럭 같은 거, 짚차 같은 것이 많이 다녀요.

슬라이드 18 : 여러분들 올림픽기간 동안에, 저도 중국서 구입해 봤지만서도 그 타임지에서 『South Korea』라는 특집이 나왔지요. 그때 그 사진 한 가운데에 여자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교통팻말을 들고 있는 북한 사진 봤읍니까? 보십시요. 보시면 그 타임지가 꼭 내가 찍은 데와 같은 데서 찍었더라고요. 여기서 찍었어요. 자동차도 한대 오지 않는데……. 평양시에는 전부 다 여자들이 수신호로 교통정리 하고 있읍니다. 여자순경들이 둘이 서 있어요. 보통 둘이 서 있는데, 장난하고 놀고 있지요. 놀고 있다가 우리 차가 가면 탁 이렇게(경례표시 하면서) 들어주고 이래요. 그 사진을 한번 더 보십시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슬라이드 19 : 이것이 지하철역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지하철역 누가 지었지요? 누가 만들었지요? 중국기술단, 지원단이 와가지고 기술, 사람, 이것은 100% 중국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모든 기자재, 군인들까지, 사람까지 와서 팠읍니다.

슬라이드 20 : 이것이 혁명열사 묘입니다. 뭐 이름은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아실 겁니다. 저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학생들이고 사람들이고 저기서 줄을 딱 서가지고는 꽃다발 바치고, 절하고 이러더라고요. 여기에는 묘가 없구요, 이외에 또 다른 데 가면 열사 묘라고 있어요. 열사 묘는 여기서 꽤 떨어져 있읍니다. 30분 정도갑니다. 여기에는 김일성 할아버지, 아버지, 김정숙여사, 이 사람들의 동상만 쭉 세워져 있어요. 한 20개……, 그런데 그 열사 묘에 가니까 조봉암씨 동상도 있더라고요. 조봉암씨 동상도 있고, 또 우리나

라에서 간첩으로 잡혀서 사형받은 사람들 동상 다 세워놓고요. 학생운동하다 잡혀간 사람, 잡혀가 죽은 사람들 등……. 여기에는 참으로 김일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20사람 이외에는 없읍니다.

슬라이드 21 : 여기가 그 외화상점입니다. 저를 안내하는, 금강산을 안내하는 여자동무한테

"인제 한 일주일 있다가 떠날 때 너에게 선물하나 사주고 싶은데, 뭐하나 사줄까?" 하니까

"선생님 바지하나 사주세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화상점에 바지를 하나 사러 갔는데, 75원 하더라고요. 바지하나에……. 얘(안내원)가 월급받는 게 얼만 줄 아십니까? 80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서 기성복을 사입지 못하게 되있어요. 인민들은 돈주고 뭘 못하게 되있어요. 그런데 많은 북한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제 저기에 와서 천을 사가요. 천을 가지고 가서 만들어 입어요. 앞으로 『남북적십자회담』하러 가실 때 외화상점에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 보십시요. 외화상점에 가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평양에는 외화상점이 2갠가, 3개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큰 곳에 여러번 가봤지요. 저기에 가면 미제국주의 욕을 그렇게 하지만도 미국 양담배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랬어요. 그래도 양담배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 제가 당간부들이 좀 사달라고 해 또 사주기도 했지요. 이곳에 가면 라면도 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라면이 있고……, 아직까지 라면을 못만든다니까요. 물론 중국도 못 만들지만, 중국은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질문 : 들어갈 때 혹시 여권을 보여 달라고 하지는 않읍니까?

답 : 아닙니다. 여기는 여권을 보지 않읍니다. 이곳에 가서는 외화표시돈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서 바꾸면 북한에는 돈이 3종류의 돈이 통용됩니다. 모르십니까?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외화표시돈 중에 자유주의 세계에서 바꾼 『달러』나 『엔』은 빨간 외화표시돈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돈, 중국 돈이나, 소련 돈으로 바꾼 외화표시돈은 파란 색깔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파란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가서 그저 먹는 것 정도는 사지만 TV나 이런 것은 못 삽니다. 그러나 빨간표시 되어 있는 자유주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의 돈으로 바꾼 외화표시돈은 무엇이든 다 사요. 그런데 보니까 모두 다 조선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동무에게 물었어요.

"야! 외화표시돈 외화상점인데 왜 외국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우리 조선사람밖에 없어?"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분들은 다 당간부들인데 조국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당연이 사셔야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간부들은 외화표시돈을 소지할 수 있는, 아마 외화표시돈을 어느 정도 주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참기름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질문 : 지난번에 북한이 새로 외화태환권을 발행하여 교환

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혹시 보셨읍니까?

답 : 아직까지도 옛날 외화표시돈 그대로 쓰던데요.

슬라이드 22 : 금강산입니다.

저게 만물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 2주전인가 토요일날인데 어느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할 때, 북한에 대해 금강산을 개방해 가지고 비자없이 왔다 갔다 하자고 제안할 생각없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국회의원 몰라도 한참 모르더라구요. 『수령님』품에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도 금강산이 개방 안되어 있는데 남조선 사람이 뭐가 고와서 개방해 주겠어요. 그래서 북한인민들도 금강산 가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저긴 특별한 사람들하고 뭐 『노동영웅』의 칭호를 받았다든지 훈장을 받는다든지 하면 『수령님』께서 초대소에 초청을 해요. 그런데 금강산 저 밑에 보니까 반반한 바위에 자기들 표현대로 말하면, 이른바 『조각영웅』들이 한 1m 깊이로 파가지고 『수령님 만세』, 『수령님따라 죽기를 맹세하고 총진군하자』 이렇게 금강산을 완전히 뜨거운 불로 도장을 찍어놨어요. 금강산 물은 맑고 차고 이래서 미생물이 자라지 않는답니다. 아무데서나 물을 마셔도 된다구요.

슬라이드 23 : 저 여자동무들 조금 클로우즈 엎 해가지고 사진 찍은 것 있읍니다.

슬라이드 24 : 저게 선녀암입니다.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 해서 선녀바위입니다.

슬라이드 25 : 바위 위에서 밑으로 본 것입니다. 바위꼭지에서…….

슬라이드 26 : 저건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100여명 거기와서 수련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우리 민요같은 노래를 모르더라구요. 그래 내가 한가지 확신을 가진 것은, 정치적 통일이 되면 감정적인 통일, 언어적인 통일, 또한 정서적인 통일이 참 힘들지 않겠냐 하고 나도 참 걱정을 했는데, 저가 북한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이예요. 우리 종교적인 표현대로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애들하고 몇시간 이야기하니까 곧 인간성을 회복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통일만 되면 정서적인, 감정적인, 언어적인 통일은 순식간에 되겠더라고요. 저애들하고 여러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질문 : 대화가 잘 되던가요?

답 : 제일 처음에는 잘 안돼. 우리네가 쓰는 단어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예를 들면, 『성경』하면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한참 설명해 주어야 되니까요.

슬라이드 27 : 이게 구룡폭포입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슬라이드 28 : 여기에, 저 여학생도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중국에서 유학와 있는 애들인데 금강산에 와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이럽니다.

슬라이드 29 : 저 여자동무들은 김책제철소에서 일하다가 수령님이 『노동영웅』의 칭호를 주고 그래서 초대되어 3박 4일인가 있으면서 아주 저하고 즐겁게 지냈어요. 옷들도 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좋은 옷을 배급해 주었대요. 헌데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사진 처음 찍어봐요" 하더라구요.

그래 내 그말을 믿어야 될런지 안 믿어야 될런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참말일 것 같아요.

슬라이드 30 : 저건 내가 물마시는 것을 같이 간 지도원 동무가 찍은 거예요. 어디든지 물 마셔도 돼요. 금강산은……, 오염이 안돼 있어요. 개방이 안됐으니까, 자연훼손이 안돼고…….

슬라이드 31 : 이 사진 잘 보세요. 북한 경제를 말해 주는 사진입니다. 저것이 평양과 원산간의 200km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콘크리트 고속도로입니다. 콘크리트 고속도론데 200km를 6시간 40분을 갔어요. 가는 데마다 그저 어떻게나 도로가 나쁜지요. 그리고 제가 원산에 두번 가봤는데도 원산만에서 화물선을 못봤어요. 일본으로 왕래하는 여객선 한 척 딱 이렇게 외로이 정박해 있고……, 이제 제가 간 그 군청소재지에서 한 30km 밖까지 저를 환영하기 위해 고속도로변까지 나왔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민위원장 동무,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인데, 고속도로에 서서 유유히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이 없어요. 북한 전역에 차량이 거의 없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 차선이 있지만 대게 다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개 몇 차선이더냐고 물으면 내가 無車線이라 했어요. 뭐 하여튼

이것은 여러분이 보면, 오늘날의 북한 경제를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예를들면 여기는(사진의 고속도로) 부산과 서울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심장부입니다. 요즘 고속도로가 개성하고 평양하고 개통되었지만도 그건 잘 만들었어요. 그건 아스팔트로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평양-원산간고속도로) 옛날엔 북한의 유일한 고속도로였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형편이 이래요.

슬라이드 32 : (트럭모양을 한 것을 가리키며) 저것이 시외버스입니다. 짐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가 사람의 수송수단이예요. 사람 수송수단이예요. 그리고 화면 좀 내려 주세요. 저기 집들의 창문 구멍 하나가 한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제가 맨 처음 볼 때에는 저 집 한 채가 한가족이 살고 있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내부도 제가 보여주겠지만서도 방 한칸, 주거면적이라는 것이 방 한칸이고, 그 방 한칸에 가운데 가로질러 가지고 미닫이를 달아 한쪽은 부부들이 자고 한쪽은 아이들이 자고 혹은 한쪽은 남자들이 자고 한쪽은 여자들이 자고, 그것이 주거면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변소는 전부 공동변소를 쓰는데, 아무리 아파트가 높아도 평양의 특수층 아파트이외에는 다 공동변소를 써요. 공동변소란 게 중국도 그렇지만서도 이와같은 큰 홀에다 변소를 이렇게 두 줄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변하는 변소가 아침이 되면 20여명이 쭉 두 줄로 앉아 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 해 가면서, 담배 피워 가면서……,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 변소라고 이름붙였어요.

슬라이드 33 : 이게 제가 간 곳에 저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들, 외부사람들이 오면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경로사상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그것은 배울 점 있어요. 북한에는 나이 많은 사람 아주 우대하고, 아주 존경하고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저하고 같이 간 지도원 동무는 초대소에 가서 자고 저는 저 집에서 잤어요.

질문 : 저 곳이 어디입니까?

답 : 그건 황해북도입니다.

감시원은 초대소에서 잤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나는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제가 나가서 사진찍고 운동하고 이러면 언제 알았는지 방에서 뛰어와요. 뛰어와서

"선생님 이러면 안됩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저 혼자 어떻게 변소를 갔다 올 때, 이럴 때 제가 사진을 찍는 기회를 많이 포착했어요. 참 힘들어요. 저 뒤에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 못하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지만도 — 우리 같으면 주위에 쭉 모여 가지고 이야기라도 해 보지 않겠읍니까? — 그러나 저렇게 멀리서만 모여 있어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북한에서 내가 시골에 가선, 평양 밖에 나가서나 사진을 찍으면 뒤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호기심이 나서, 외부사람을 보니까 호기심이 나고, 물론 저런 승용차가 들어오니 더 호기심이 나죠. 군청소재지라도 승용차가 없어요. 한 대도 없는 곳이 많아요.

질문 : 저 곳이 시지역입니까? 리입니까?

답 : 예, 이곳이 군소재지입니다. 여기가 집 입구인데 바깥에서 보니까 저렇게 번드르하고 좋지요. 저가 들어가서 자는 집 입구가 이렇읍니다.

슬라이드 34 :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손님이 와도 식당에서 만찬회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시나 군청 회의실에서 만찬회를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저분이 인민위원장 선생이고, 저 오른편 벽에 있는 조그만 통 저것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저것이 라디오입니다. 평양공항에 도착하면 딱 한가지 물어요.

"선생님 라디오 가지고 오셨읍니까?"하고 물어요.

라디오는 꼭 묻습니다. 라디오 가지고 왔는지 안가지고 왔는지……. 저것이 그 끌 수도 없고, 켤 수도 없는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당간부 부인들이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회의실에서 저렇게 만찬겸 환영회를 합니다.

질문 : 혹시 북한에서 한국 라디오 방송 들어 보았읍니까?

답 : 글쎄! 라디오는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대답을 못하겠읍니다.

질문 : 술은 없었읍니까?

답 : 다음 장면을 돌리면 거기 술이 있읍니다. 돌려보세요.

슬라이드 35 : 술은, 북한에는 맥주가 세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그리고 인삼주하고 이런 것들, 그 술종류는 많읍니다. 술 종류는 꽤 되는데, 그 참 인민들이 배급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중앙에서 제가 가 있는 일주일동안 특별배급이

나왔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당간부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뭐 이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아침부터 같이 먹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여긴 개인 집인데, 오실 때는 미리 말을 하고 오셔야 돼지 않읍니까?"이러니까

"선생님 염려마세요. 우리들이 미리 다 배급 주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있는 동안에 쌀밥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뭐 참 잘 먹었어요.

슬라이드 36 : 저 뒤를 봐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지요. 저긴 외부사람들이 오는 모범 마을이라서 전부 다 흰 페인트로 다시 칠해 놨더라고요. 전부 뭐, 하여튼 담장까지. 그 다음에 저기 저 파란문은 저만 사용하는 변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공동변소 쓰는데, 저 변소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저만 사용하라 이러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저는 밤에 자다가 소변 한번씩 봐야되는데, 내려올 때 한참 걸리더라고요. 내가 있던 집 아이들에게 아침에

"저 변소를 너희들 사용하니"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 변소는 선생님만 사용하지 다른 사람은 사용 못합니다."이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휴지도 가지고 간 휴지를 썼어요.

슬라이드 37 : 『어버이 수령님』이,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라서, 저 시골아이들 옷도 똑 같지요. 아까 평양에서 본 옷하고, 그러

나 신은 검은 신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저 짚단으로 가려진 저기서 돼지도 기르고 이러더라고요.

질문 : 저 뒤에 보이는 것 돼지입니까?

답 : 아니지요. 돼지를 어떻게 저렇게 기르겠어요. 저 사람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개를 많이 기르는데 이것도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 결혼식이 있다든지 이럴때는 개를 잡아 줘요. 그 단고기를 잡아서……. 왜 저렇게 흰 페인트를 칠해 놨겠어요. 이 외부사람에게 보이는 게 이정돈데 실제 시골의 형편은 어떻겠어요.

질문 : 지붕은 무엇으로 덮은 것이던가요?

답 : 어떤 것은 기와고, 어떤 것은 기와가 아니고 납작한 돌처럼, 돌은 아니고 흙을 가지고 구운 거라 이러더라고요.

슬라이드 38 : 이것은 체육, 운동대회 하는 것이고,

슬라이드 39 : 저것이 아침, 저녁 『매대』라고 하는 밥공장입니다. 아침, 저녁 『매대』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제가 이건 포착을 참 잘했어요. 대개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여자들도 대게 봇짐을 지고 다녀요. 시골가면 봇짐, 전부 다 봇짐이예요. 봇짐을 지고 다니는데 아마 저 사진은 여러분 아직 못 봤을 거예요. 아침, 저녁 『매대』 앞을 지나가는 저 아주머니에게 제가 물어 봤어요.

"안으로 뭐 가지고 가십니까?"이러니까

"예, 오늘 우리 양곡 배급타는 날이예요" 이러더라고요.

15일분의 가족 양곡 배급을 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을 봐

요. 전부 검은 신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동무들 양말 안 신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저 신 밑창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속이 보여요.

슬라이드 40 : 제가 있었던 방이었어요. 집이라 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방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새 것이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같이 있었어도 옷을 바꿔 입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장판이고, 벽지고 모두가 새거였고, 어항에는 금붕어는 없고요. 저기 있는 마호병에 물을 담아서 나만 마시라고 그러더라구요.

슬라이드 41 : 저건 내가 가지고 간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아무 거부반응이 없어요. 성경이란 것이 뭣인지도 모르는데, 인민위원장도 지금 겁도 없이 성경 껴안고 있어요. 저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는 제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3일동안 같이 자면서 생활하는데 옷을 벗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민들에게 『김일성 원수님』 말 한마디하면 『당중앙지도자 동지 김정일 선생님』에 대해 한 세번쯤 말을 하도록 이렇게 자꾸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얼굴을 봐요. 참 순진해요. 거짓말 할 줄 모르더라구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절대 학생들 데모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개방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비교능력이 없으니까…….

밤에 우리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잘 때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자고, 어떤 때는 혼숙을 하고 이랬어요. 저 뒷사람 옷 입은 채로 자요. 저게 병원 원장집입니다. 병원 원장집이 방 한칸에 그저 미닫이 넣어 가지고 살아요. 저 옆에

부엌이 있어요. 방안에 부엌이 있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 내가 그날 준 성경책을 펴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진한장 찍은 거예요. 제가 있었던 집의 아이들이 5공주예요, 5공주. 산아제한 안합니다.

슬라이드 42 : 이게 제가 있었던 집 주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닫이 집이었어요. 뒤에 보이는 옷장이 북한의 최신형 옷장입니다. 노랑저고리 빨간치마 입고는…….

슬라이드 43 : 어디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보면 아이들 장난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과 이렇게 『에어로빅댄싱』이나 하지요.

슬라이드 44 : 여기는 이번 10월 10일날 찍은 건데, 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건데, 낚시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만 던져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죠?

슬라이드 45 : 저것이 신의주입니다. 압록강 이쪽 중국쪽에는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북한쪽은 압록강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중국쪽에는 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관광유람선도 다니고 이래요. 그런데 이 북한쪽에는 손도 안대고 있어요. 지금 건물하나만 딱 지어 놨어요.

슬라이드 46 : 신의주의 공업지댄데 신의주에는 제약회사하고 그런 곳이 많읍니다. 저게 방직공장인데 굴뚝에 연기가 안나요. 저 굴뚝을 제가 세어 봤는데 한 열두개인가 열세개인가 있는데, 꼭 굴뚝 한곳에서만 연기가 나더라고요.

질문 : 가동이 안돼나요 ?

답 : 가동이 안돼요. 저 굴뚝봐요. 어디 연기나나. 저게 지난 달 사진입니다. 저기 옆에는 조선을 하는 것같이 해 놨지만 아무도 일도 안해요. 사람도 없고, 일도 안하고, 배하나 올려 놨더라고요.

슬라이드 47 : 저게 안전직원들이예요. 내가 왜 이걸 찍었느냐 하면 저 뒤에 보이는 한 군데만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 아주 기특해서 하나 찍었어요.

슬라이드 48 : 이게 분단된 철교인데 이것이 신의주쪽에서 찍은 겁니다. 저쪽 하나 큰 철교, 저게 하루 기차 한번 다니고, 그 다음 저 같은 철교 위로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6.25가 53년에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철교 하나를 복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교역량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들의 경제수준도 알 수 있겠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게 유일한, 아니 유일하진 않죠. 도문쪽으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철교 저것 하나 가지고 중국과 북한, 신의주와 단동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슬라이드 49 : 이것은 丹東쪽을 찍은 거예요.

슬라이드 50 : 제가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다 정이 들었는데, 솔직히 과장되지 않게 말해서 북한에는 숟가락, 젓가락도 『수령님』 것이더라고요. 자기소유 아니예요. 아직까지 북한에는 조그만 것도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들이

나한테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무엇을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막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눈물만, 어린아이들까지 울어요.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 사회상

1989년 2월 16일 인쇄

1989년 2년 18일 발행

발 행 처 국 토 통 일 원
전 화 720-2426, 2143

인 쇄 처 문 성 경 인(주)

국통조 89-2-13 (비 매 품)